



내 안의 노란 튤립

"I Choose to love myself"

<주요 강의 내용>

1. 감성의 소통을 통한 나를 이해하고 내 주변을 사랑하는 시간
2. 음악이 갖는 전달력을 통해 나와 내 주변에 대한 사유의 시간
3. 첼로의 선율을 감상하며 감성자극과 함께 다문화 감수성 향상
4.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음악을 통해 느끼는 다양한 감성적 표현 이해
5. '정답' 보다는 다양한 '해답'만이 존재하는 삶의 다양성
6. '함께' 그리고 '같이' 악기를 연주 하면서 '가치'있는 문화이해
7.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인정(人情)'이 아닌 '인정(認定)'의 수준까지 올려보기

다문화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마음가짐을 강사의 청소년 시절 유학생의 신분으로 살아가며 느끼고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알아가는 시간

‘첫 유학지인 카자흐스탄 음악학교에서의 기억은 ‘외로움’이었다. 한창 사춘기 시절, 그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무엇이든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늘 부담이었다. 결정이란 것을 스스로 해 본 적이 없는 나이 아닌가. 또한, 먼 타국의 친척 집에 거주하는 입장에서 사춘기의 ‘감정 폭탄’을 함부로 터트릴 순 없었기에 더 외롭고 엄마가 보고 싶었던 것 같다. “엄마, 나 그냥 집에 갈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화기를 들었다 놔다’

(중략)

‘한국 학생은 달랑 나 혼자였다. 처음에는 동물원의 원숭이를 보듯 날 보며 신기해하며 말도 걸어주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아 나를 답답해하며 친구들은 하나 둘씩 멀어지며 내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다음 수업은 어디서 하는지’, ‘과제가 무엇인지’, ‘준비물이 무엇인지’, ‘점심시간 이후에 뭘 어쩌라는 건지’, ‘시험은 어떻게 친다는 것인지’그 어느 것도 쉽게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친구들은 서서히 날 ‘투명 인간’ 취급했다. 어느 날은 수업 시간 중간에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반 친구들이 모두 다른 교실로 이동한 것이다. 수업 시간 도중에 다음 수업이 어느 교실에서 진행되는지 알려주었겠지만 알아듣지 못한 나는 미처 친구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미로 같은 학교를 헤매고 다녔다.’

(중략)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면 퇴학 조치를 받는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학교 뒤 풀숲에 숨어서 담배를 피웠다. 잘 사는 친구들이라 싸구려 러시아 담배를 피우지 않고 ‘말보르(Marlboro)’를 폈다. 나에게 유일한 친구들인 이들을 담배를 못핀다는 이유로 잃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에서 수많은 좌절감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선택한 유학이기 때문에 나는 ‘무사히 졸업’이라도 해야 했다. 또한, 선교사인 외삼촌에게 담배 피우는 걸 걸렸다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담배는 절대 피우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친구들이 나와 함께해 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컸다. 예상했던 대로 그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혜린 너도 퍼!”

친구들은 내게 말보르 담배 한 개비를 권했다. 나는 잠시 주춤했다. 그 순간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미안 난 한국 담배 아니면 잘 못 퍼. 내가 망봐 줄 테니 너희들 퍼! 선생님이 오시면 내가 한국말로 ‘튀어’라고 외칠 테니깐 그뎨 도망가 알았지?”, “자, 따라 해봐, ‘튀어!’”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얼핏,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담배가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도 같다. 그 담배 아니면 잘 못 핀다고. 진지한 얼굴로 ‘튀어’를 연습하던 우리들은 웃기 시작했다.

강사소개

첼리스트 이.혜.린.

〈학 력〉

카자흐스탄 알마티 음악영재학교(첼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 국립음악원 학, 석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 국립음악원 연주학 박사

〈경 력〉

현. 다가치나눔교육플랫폼 공동대표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연구원

유니블하트 이사(탈북민지원단체)

〈강의 및 연구〉

- 다문화이해교육
- 생명존중교육
- 자기주도진로탐색코칭
- 자기주도학습코칭
- 셀프리더십

〈저 서〉

-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만들 사람들의 이야기 1,2

내 안의 노란 튤립

"I Choose to Love myself"

강의 문의. 010 9649 0611 / 043 230 3857

자세한 안내는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